

경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, 초등교사 대상 느린학습자 지원 교육 실시

✎ 김진태 기자 | 📅 승인 2026.06.13 17:24

느린학습자 이해와 맞춤형 지원 전략 집중 교육 진행
교사들 실제 사례 공유하며 학교 현장 적용 방안 모색
박재홍 센터장 느린학습자 건강한 성장 강조

(경주=국제뉴스) 김진태 기자 = 경북 경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느린 학습자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.



(제공=경주시보건소) '느린학습자의 이해와 지원전략' 교육

이번 교육은 6월 10일 경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박재홍 센터장의 주관 아래, 지역 내 초등학교 교사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.

교육의 주제는 '느린학습자의 이해와 지원전략'으로,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느린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학생별 맞춤 지도와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.

느린 학습자는 지능지수 71~84에 해당하는 경계선 지능 아동 및 청소년을 일컫는다. 이들은 또래에 비해 학습과 사회생활 전반에서 더 많은 시간과 지원이 필요하다.

이날 교육에서는 느린 학습자의 인지적·정서적 특성, 학교와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학습 전략, 정서 및 사회성 발달을 위한 훈련 방법, 그리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지지 및 동기부여 방안 등이 다뤄졌다.

참석한 교사들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지원 방법을 공유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.

박재홍 센터장은 "느린학습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교 적응을 돕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"고 밝혔다.



김진태 기자 n2000@daum.net